

대체복무법 개정안 나왔다

국방위 전체회의 통과… 36개월 복무·합숙
교도소 등 공익 업무·무기 단속 행위 등 불포함
대체역 신설… 소집 불용·이탈시 3년이하 징역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병역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방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36개월로 정하고 복무 형태는 합숙 방식으로 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대체복무 시설은 교도소 등 대체복무 기관에서 공식에 필요한 업무에 복무하도록 하되 무기·흉기를 사용 또는 관리·단속하는 행위 등을 업무에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국방위는 대체역 편입신청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한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국방부 소속으로 두도록 한 정부 원안 대신 병역 업무를 전담하는 병무

인권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활동가와 4급 이상 공무원·군인이 포함되도록 했다.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편입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인용, 기각, 각하 결정을 내려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결정을 못할 경우 60일 이내에서 심사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정부 원안에 포함됐던 위원회의 '재심' 권한도 삭제됐다. 정부는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지만 국방 위원들은 심사위원회의 조직 비대화를 우려해 행정심판, 소송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도록 했다.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총 29명으로 상임 위원은 5명을 두고 국가인권위원회장과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외에도 대안변호사협회 등에서 추천하도록 범위를 넓혔다.

위원 자격으로는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의 법조인뿐만 아니라 비영리단체 앞에서 백승주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지난 13일 법안소위에서 "대체복무 법안은 당사자와 국민이 모두 승복 할 수 있는데 가장 중점을 뒀다"며 "그동안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과 공청회 등에서 나온 내용을 고려해 국회가 창의적으로 법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뉴스스



차어도 선박 화재사고 보고받는 진영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오후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구조본부에서 제주 치어도 선박 화재사고 구조 및 수습상황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文 대통령, 제주 화재 선박 인명 구조 총력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제주 경영면 고성리 치어도 남쪽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 화재 및 침몰사고와 관련 인명 구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의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 해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지시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높은 파고와 차기운 수온으로 신속한 구조가 무엇보

다 중요한 만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경·해군·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 협동 구조 활동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가족들에게도 연락해 수색 및 구조활동의 진행 상황을 최대한 신속하게 알려주고 지원을 다하겠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베트남 대사관을 통해 베트남 피해자 가족들에게도 즉시

연락을 취하고 가족들의 한국 방문 등 필요한 편의를 보장해 달라고 주문했다. 현재에 파도가 높고 수온이 차기운 만큼 구조활동에 있어서 수색·구조 대원들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것도 함께 강조했다.

한편 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5분께 제주 치어도 남쪽 76km 해상에서 29t 규모의 연승어선 대성호에 화재가 발생해 침몰했다. 해당 선박에는 한국인 6명과 베트남 국적 6명 등 총 12명이 탑승했으며, 이 가운데 1명은 구조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끝내 목숨을 잃었다. /뉴스스

도의회 문건위, 지방하천 정비사업 현장 방문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정호운)는 19일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정읍 용산천을 방문해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용산천 정비사업은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가 잦아짐에 따라 취약

한 수리·수문 시설을 보완, 수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공사는 2021년까지 하천 정비 4.31km, 총 263억 원(국비 132, 도비 131)이 투입되며, 지난 2016년 6월부터 시작한 1단계(2.84km) 공사 공정률은

전체 공정률의 72% 였고 6월부터 시작한 2단계(1.47km) 공사의 공정률은 전체 공정률의 5%를 기록하고 있다.

이날 현장을 찾은 문건위원회들은 "정비사업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비한 하천 흥수 대응능력을 향상해 농토 및 민가의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이 도모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뿌리깊은 이원택, 담대한 여성’

김제예술회관서 내달 7일 출판기념회 열어

이원택 전 전북도 정무부지사가 출판기념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오는 12월 7일 김제 예술회관에서 '뿌리 깊은 이원택, 담대한 여성' 저서전을 선보인다.

자신이 걸어온 길과 새롭게 만들어 갈 김제·부안, 전라북도, 대한민국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출판기념회에서는 민주주의와 전북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당과 도정



의 현안을 조율하는 가교 노릇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통령직속 국가 균형발전위원회 전략기획위원으로 지방 소멸 위기와 불균형 해소를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진성 기자

이인영 “내년 직불제 예산 3조원으로 증액… 농민 근심 덜겠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내년 예산안 심사에서 (공익형) 직불제 예산을 정부 제출안보다 800억 원 증액된 3조원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농민들의 근심을 덜고 농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예방을 받고 “WTO(세계무역기구) 개도국 지위 종료는 정부로선 불가피한 결정이었지만 농민들의 근심이 커다”며 “이번 결정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더 커지지 않게 농가소득 안정화와 농업 선진화에 당정이 힘 모아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보이고 있는 ASF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정부가) WTO 개도국 특혜 주장을 앞으로 하지 않기로 해 농민들의 근심이 크다”며 “농업 분야의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해 내년도 농업 예산 지원에도 각별한 관심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농수수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 원주 의원도 “농지 개혁에 버금가는 농정 개혁인 공익형 직불제 도입이 상임위 차원에서도 마무리 단계”이며 “원내 지도부가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여야가 할 의해서 잘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뉴스스

조배숙 국회의원, ‘갑질과의 전쟁’ 출판기념회 개최



개최되며 정동영 대표, 김광수, 박주현 의원 등 당 소속 의원과 정현을 익산시장 등이 참석한다.

조배숙 의원이 폐낸 ‘갑질과의 전쟁’은 지난 1년 3개월 동안 저자가 디루어온 갑질 피해 민원 해결 과정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조배숙 의원의 ‘갑질과의 전쟁’은 20대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성과 인터뷰 및 언론에 기고한 칼럼 등을 재구성해 평했다.

책은 1장 갑질과의 전쟁, 2장 살아있

는 호남정신, 3장 조배숙의 인간극장, 4장 위대한 익산 응성스토리, 5장 조배숙의 말, 말, 말 등 모두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배숙 의원은 “국민들이 민생현장에서 부딪치는 ‘갑질’의 실상을 접하고 이를 해결하면서 정치인으로서 큰 보람을 느꼈다”며 “갑질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날까지 갑질과의 전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조배숙 의원 출판기념회는 23일 익산 개최에 이어 27일에는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익산=정양원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